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20일 축산단체,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통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여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질병 발생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중 축산업 면허제·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방역실시요령, 표준행동지침(SOP) 등에 즉시 반영하여 향후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방역실시 요령을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선진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기간 축산시설, 축산 관

련자 등을 대상으로 7. 21~8. 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P102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특성 연구 시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상시에찰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연중 분리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분포 양상 등을 파악하고 바이러스의 특성 연구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유전학적 특성 및 축종 상호간 관계 구명' 연구 과제를 금년부터 3년간 기관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중이다.

지난 7월에 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평가에서 발표한 2010년 상반기 예찰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으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총 118주를 분리했다. 이중 야생조류에서 25주, 육용오리 등 가금류에서 93주의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닭에서는 H9형의 바이러스만 확인된 반면 오리와 야생조류에서 다양한 혈청형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월별 분리율은 야생조류의 경우 2~3월, 가금류의 경우 4~6월에 주로 분리되었으며, 지역별 분리율은 야생조류의 경우 경남 지역이 52%, 가금류의 경우 전남 지역이 85%를 차지하여 시료채취 시기와 사육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결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바이러스는

지난 2010년 5월 전남지역 오리 농가 2개소에서 발생한 H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이었다. 이들에 대해 유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바이러스로 판명되었고 야생조류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뿐만 아니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고 바이러스의 변이여부를 감시하여 변종바이러스의 출현과 병원성 변화 등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뉴캐슬병 급격히 감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는 최근 3년간 검역원에 의뢰된 닭질병을 검사한 결과, 닭의 악성 전염병인 뉴캐슬병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008~2010년에 검역원에 의뢰된 닭질병 검사는 총 839건으로 뉴캐슬병으로 진단된 예는 12건(1.4%)에 불과했으며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는 아직까지 발생된 예가 없었다.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 ND)은 병원성이 높은 뉴캐슬바이러스(NDV)가 닭에 감염되면 2~3일만에 거의 전연령층의 닭이 100% 폐사하는 악성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검역원은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뉴캐슬병은 부화장 및 양계장의 철저한 ND 백신접종으로 질병이 예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백신접종, 철저한 위생, 차단방역을 꾸준히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 뉴캐슬병 예방접종 기본 프로그램

구분	백신접종시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 백세미	1일령 분무	2주령 음수, 분무, 점안	4주령 음수, 분무, 점안		
토종닭	1일령 분무	2주령 음수, 분무, 점안	3~4주령 음수, 분무, 점안	6~7주령 음수, 분무, 점안	
산란계, 종계	1일령 분무	2주령 음수, 분무, 점안	4주령 음수, 분무, 점안	7~8주령 라스타/겔	15~18 주령 오일 백신

검역원-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MOU 체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이치호)은 지난 7월 19일 가금제품 수출활성화와 관련 상호 협력키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산식품 연구, 지도자 육성, 학술 및 기술정보, 축산식품 안전 관리기법 조사·연구사업 등 축산식품 전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가금제품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축산식품 국제경쟁력 강화와 위생수준 증가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원은 지난해부터 건국대 닭고기수출사업연구단과 공동으로 '중국·중앙아시아 계육제품 위생검사관리기준규격에 관한 연구', '미국 HACCP 전문가 초청 수출희망 계육작업장 현지기술자문' 등 공동 협력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소비자시민 모임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호)과 (사)소비자시민 모임(회장 김재욱)은 지난 7월 9일 농식품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식품의 안전성, 원산지표시 등 양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 원산지 및 인증품 표시관리 업무의 신뢰 향상과 아울러 상호간 업무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업무협약서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및 연구 분야 ▲농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표시 관리 ▲농식품 원산지 및 GMO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농식품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농식품 품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DNA 검사로 우리맛닭 구별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DNA검사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맛닭을 비롯한 브랜드 닭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약 1,730종의 브랜드 계육이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유통 및 가공단계 등을 특정지은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고품질 계육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래닭 등을 이용한 계육브랜드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맛닭'이라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우리맛닭'과 같이 혈통이 한정된 품종에서 개발된 브랜드 계육에 대하여 DNA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 외부유전자의 혼입여부로 브랜드 상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닭에서 적용한 DNA 프로파일링 기법은 상품생산에 관련한 본래집단인 순종·원종에 대하여 모든 수수를 분석해 DNA의 종류를 목록화 시킨 후, 그들로부터 생산된 최종산물인 상품에서 해당유전자 이외의 유전자가 혼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의하면 우리 맛닭을 이용한 경우 개체간은 96.61%, 25수 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100%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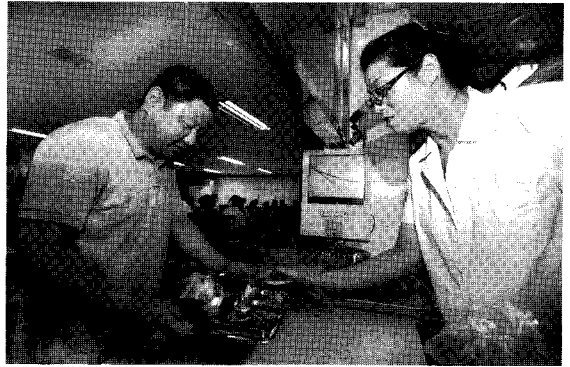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고응규 연구사는 “DNA 검사방법은 올바른 상품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혈통 브랜드의 고품질 브랜드계육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며,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DNA 분석도 상품 형성에 관련한 개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그 기대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초복 맞아 우리맛닭 시식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7월 19일 초복을 맞아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맛닭으로 만든 삼계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근육섬유가 가늘고 연해 소화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가 약한 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 좋다.

또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닭 가슴살은 단백질을 23.1%나 함유하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다. 닭날개의 경우 콜라겐



성분이 많아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닭날개를 먹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닭고기는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전체 지방의 3분의 2 정도가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다른 육류보다 필수지방산이 많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열환경 관리를 잘하면 가축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에서는 지난 7월 21일 경상대학교 최양호 교수를 초청하여 ‘열환경이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도 시락 포럼을 개최했다.

최양호 교수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하여 열환경에 따른 가축의 대사 및 생리변화로 나타나는 열 스트레스 현상에 대하여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열환경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가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열 스트레스로는 온도·습도·환기·밀도·나이·대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온기 가축 및 축사관리에 제시한 요인들을 제대로 제어해야만 고온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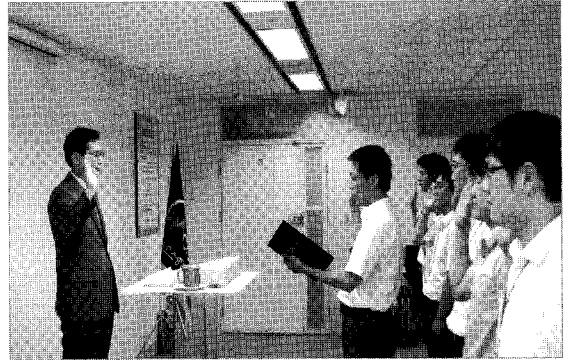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이번 도시락 포럼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열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흡연자 대상 금연운동 펼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7월 5일 8층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 중 흡연자 21명을 대상으로 금연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금연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금연운동은 외부적으로는 축산물HACCP기준원이 민원부서로서 대민 상담시 흡연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흡연자 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



개되는 자율참여 운동이다.

금연운동 참가자들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4단계의 금연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최초 3만원이 입금된 기념통장 지급과 더불어 단계별로 금연을 성공할 경우 매 단계마다 3만원씩 성공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끝까지 성공할 경우에는 표창 및 격려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담배와 관련된 대화 금지, 재 흡연 감시, 응원문자 격려, 금연피해 사례 모집, 금연포스트 공모 및 부착 등으로 금연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흡연에 대해 개인적인 측면(금전, 질병에 노출, 위생 등), 대인 관계적 측면(간접흡연, 불쾌감, 공해유발 등), 조직적 측면(이석, 건강, 타 직원 불편 등)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오늘의 금연서약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금연에 꼭 성공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HACCP적용을 위한 투자비용 모델 개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는 식육포장처리장과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적용시 업체의 과도한 설비투자를 방지하고, 그 비용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HACCP적용을 위한 투자비용 모델'을 개발했다.

각 모델별 투자항목 및 비용은 HACCP실시상황 평가표에서 요구하는 설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법적 요건(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제외하고 산정했다.

또한 업체별 여건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설비와 가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타 설비 가격조사 내역을 첨부했다.

본 모델은 축산물 HACCP적용을 계획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을 위한 예를 제시한 것이므로, 각 업체 여건에 맞게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기준원 홈페이지(<http://ihaccp.or.kr/renew/user/notice/list.asp>)를 참조.



기 위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교육은 HACCP 개요 및 심사절차, HACCP 정책 및 고시해설,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준비 5단계·7원칙 이해, HACCP 실습, 평가기준 이해, HACCP 지정업체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축방역사들은 HACCP 기술지도와 축사환경컨설팅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 및 도축검사 결과 피드백 사업을 연계한 고객감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방역본부는 HACCP 전문과정 교육을 지난해 출장소팀장 등 51명과 금년 45명 이외의 가축방역사 전원에게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HACCP 전문과정 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7월 14일~16일 3일간 45명의 가축방역사를 대상으로 HACCP 전문가 과정과 축사환경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호 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HACCP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축산농가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축사환경개선 서비스를 통한 농장생산성 향상과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기관으로 발전하

(사)대한영양사협회

2010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지난 7월 22



일~23일 서울 흥은동 소재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도약! 국민영양의 리더, 영양사' 슬로건 아래 '2010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및 '제17회 식품·기기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성공과 성공의 지속', '식문화의 진화와 지식의 통섭'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전문인의 역할', '미래의 식품안전 패러다임 : 영양과 식생활 안전'에 대한 기초강연이 마련됐다.

첫날인 22일에는 급식경영 역량 강화 전략, 임상영양의 최신 지견, 안전관리 확보 방안,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영양 전략의 주제 강좌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지역사회와 학교급식, 소아질환 영양치료, 교육과 상담의 실제, 운동과 영양을 주제로 강좌가 실시됐다.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 식품·기기전시회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았으며 최신 식품 및 기기 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영양사에게는 효율적인 급식 관리에 도움을 주고 참여 기업에게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거듭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식품업체 43개사(장류, 면류,

묵류, 나물류, 두부류, 떡류, 냉동냉장식품, 가공육외), 기기업체 24개사(콤비오브, 주방용품, 주방조리기구, 단체급식용 식기, 야채세척기, 야채절단기, 가스자동밥솥, 살균소독기 외), 기타업체 7개사 등 총 74개 관련 업체가 참여해 단체급식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과 최신 개발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우리 농식품 안전 체험관에서는 '건강한 식생활! 우리 농식품으로' 슬로건 아래 우리 농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오감(五感)체험 교육관이 운영됐다. 

<인사소식>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7월 16일자

<과장급 전보>

- 축산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신현관
-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서기관 김응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년 7월 16일자

<과장급 직위승진>

- 역학조사과장 수의연구관 김병한
- 수의생명공학과장 수의연구관 이희수

<과장급 전보>

- 축산물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이지우
- 감시조사과장 기술서기관 유제일
- 위생정보과장 기술서기관 전종민
- 질병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정병곤
- 동물약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이기욱
- 서울지원장 기술서기관 김창섭
- 인천지원장 부이사관 임경중
- 중부지원장 기술서기관 이홍섭
- 호남지원장 기술서기관 이상진